

AMRO, 올해 韓 성장률 1.6% 전망…美 관세 요인

2025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한국 성장률 1.6%, 물가상승률 1.9% 전망

‘아세안+3(한중일) 거시경제조사 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를 역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지난해 제시했던 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AMRO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AREO는 AMRO

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로,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자료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1.6%, 물가상승률은 1.9%로 전망했다. 2025년 성장률 전망치는 AMRO가 지난해 21일에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상 전망치와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12월 전망(1.9%)보

다는 낮은 수치다.

한국의 2026년 성장률은 1.9%, 물가상승률은 1.8%로 제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미국의 관세 조치라는 악재가 잇따라 돌출하면서 최근 국내의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 아시아개발은행(ADB·1.5%), 한국은행(1.5%), 한국개발연구원(KDI·1.6%) 등이 1%대 중반으로 전망치를 낮췄다.

아세안+3 지역의 올해 성장률은 4.2%, 물가상승률은 1.7%를 전망했

다.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는 ▲중국 4.8% ▲홍콩 2.4% ▲일본 1.3% ▲인도네시아 5.0% ▲말레이시아 4.7% ▲싱가포르 2.7% ▲태국 2.9% ▲베트남 6.5% 등이다.

AMRO는 향후 하방위험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는 글로벌 무역 경로를 통해 역내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금융여건의 긴축, 주요 경제권 성장둔화, 원자재 가격 급등을 단기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기술적 충격 등을 하방 요인으로

지목했다.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재정 정책의 단기적인 경기 대응 능력을 유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완충여력을 확보하는데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조정 폭과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되, 금융·대외안정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 안정을 지원하는 국제 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뉴시스

중기부·고용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위해 머리 맞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만성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양 부처는 15일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조치로 ‘전략협업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추진할 협업과제의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 창출·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협업 과제로 ▲지역 우수기업 지원 강화 ▲폐업 소상공인 조기 취업 촉진 ▲기업채용지원 연계 강화 등을 선정했다.

중기부와 고용부는 일자리 우수기업인 ‘참 괜찮은 강소기업’을 공동 선정하고, 고용센터는 채용지원 연계 등 종합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은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이수 후 취업 시 고용부의 ‘고용촉진장려금(취업취약계층 채용사업장 장려금)’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 기업인력애로센터와 고용부 기업도약보장패키지 간 연계를 통해 기업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한 시너지 창출한다.

양 부처는 매월 1회 전략협업 협의체를 지속 개최해 성과 창출을 위한 과제별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현대차, 2026 아반떼 출시…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

버튼시동·스마트키 등 주요 사양 기본화

하이브리드에 “모던 라이트” 트림 신설



준중형 세단 ‘더 뉴 아반떼’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아반떼’. /현대차 제공

현대차가 준중형 세단 ‘더 뉴 아반떼’의 연식 변경 모델인 ‘2026 아반떼’를 15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2026 아반떼는 고객 선호 사양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버튼시동과 스마트키, 스마트키 원격시동, 웹캠 시스템, 스마트 트렁크, 앞도어 포켓 라이팅 등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해 편의성을 강화했다. 중간 트림인 ‘모던’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텝오프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안전구간·곡선로)이 기본화돼 주행 안전성과 편리함을 높였다.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는 17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가 기본으로 제공돼 고급스러운 외관을 완성했다.

광주·전남 3월 무역 흑자 14억800만 달러…수출 12.6% ↓

전년 동월 대비…광주본부세관 수출입 동향 발표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14억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은 반도체, 가전제품, 석유제품 등의 감소로 전년 대비 12.6%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감소한 45억4700만 달러, 수입은 21.3% 감소한 31억3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4억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월 말 누계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한 138억8400만 달러, 수입은 10.2% 감소한 108억24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30억6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0% 감소한 13억3800만 달러, 수입은 16.0% 증가한 7억1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2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1.7%), 기계류(32.8%),타이어(6.1%)가 증가했고 반도체(25.3%), 가전제품(35.4%)은 감소했다. 수입은 반도체

(18.1%), 고무(256.0%), 기계류(68.7%),가전제품(2.2%)이 증가했으며 화공품(7.5%)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4% 감소한 32억900만 달러, 수입은 28.1% 감소한 24억2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8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수송장비(448.3%)가 증가했고 화공품(28.0%), 철강제품(13.9%), 석유제품(49.1%),기계류(8.1%)는 감소했다.

수입은 화공품(0.1%)이 증가했고 원유(37.6%), 철광(19.0%), 석탄(26.3%), 석유제품(2.5%)은 감소했다. /권형안 기자

직원 둔 자영업자 3만명 사라졌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9만명 줄어…6개월째 ↓

지난달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3만명 가량 줄었다.이 가운데 절반은 도소매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이 지속되자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두던 자영업자들이 소멸하는 양상이다.

15일 뉴시스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DIS)에서 지난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도소매업에서 1년 전보다 1만5000명(-5.3%) 줄었다. 산업 분류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9만명으로 전년보다 2만9000명(-2.0%) 감소했다. 사라진 자영업자 2만9000명 중 과반이 도소매업이라는 뜻이다.

그 뒤로 운수 및 창고업에서도 전

년보다 1만2000명(-30.2%)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규모의 대부분을 두 산업이 차지했다.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다. 지난해 11월에는 3만9000명, 12월 4000명 감소했고, 최근 석 달 간도 2만명 넘게 쪼그라드는 중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24.0%), 도매 및 소매업(19.5%), 제조업(12.7%), 건설업(9.2%)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소비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업에서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사라지는 추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게의 소비 여력이 줄었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늘면서 오프라인 도소매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지역 농협 3곳, NH손해보험 연도대상

서광주·송정·북광주농협 대상…이지영 과장개인 은상



광주지역 농협 사무소 3곳이 ‘2024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각 그룹별 1위로 대상을 수상했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4일~15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서광주농협, 송정농협이 종합 부문 대

을 받는데 이어 북광주농협이 순일 반보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개인 부문 시상에선 서광주농협 이지영 과장(은상)·정윤희 주임(동상)·전은주 과장(우수상) 등 3명이 영예를 안았다.

/권형안 기자

전남, 해상풍력기업 글로벌 투자유치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서 목표 신항 등 인프라 등 홍보

전남도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까지 3일간 유럽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산업 전시회(Wind Europe 2025)에 참가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면담하고, 목표 신항을 포함한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와 투자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해상풍력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다.

550여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정책 결정자, 연구기관 등 1만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협력, 한국 풍력 투자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남지역 풍력산업의 강점을 역설함으로써 참여한 해상풍력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품 제조업체 및 프로젝트 개발사들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최적의 투자 환경을 갖춘 목표 신항을 소개하고,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설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조순희 기자

광주상의, 25일 문화행사 시립교향악단 협연 연주회

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업체 임직원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품격 있는 문화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25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클래식 관람 행사를 첫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숨 가쁘게 달려온 회원 기업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잠시나마 여유와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협연하는 연주회로, 클래식 입문자부터 애호가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베를린 및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국내의 주요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김태형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어우러져 회원기업 임직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회원업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GS칼텍스 대정비작업 마무리…지역 경제에 ‘단비’

공사비 3083억 현금지급…지게차 접근금지 AI 기술 도입 등

여수국가산단 내 GS칼텍스가 3080억원을 들여 2025년 상반기 대정비 작업(Turn Around: ‘TA’)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GS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6개 팀 13개 공장에서 상반기 대 정비 작업을 펼쳤다.

총3083억이 투입됐으며, 1일 평균 2270명, 연인원 9만1000명이 40여 일간의 대장정에 함께 했다. 인건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투입 비용 중 70~80%는 지역업체 활용 및 지역 물품 구입, 지역민 채용 등에 사용되면서 지역 경제 활

성화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GS칼텍스 TA 책임자는 “정유공장은 다양한 공정에 대해 순차적으로 대 정비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매년 대 정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효율적인 작업 진행 및 지역업체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공정별로 길게는 22개월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 안전 장비를 작년에 이어 대거 투입했다.

작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휴먼 에러’를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했다.

상반기 TA에 적용한 대표적인 스마트 안전 기술로는 AI 기술을 활용한 지게차 접근 금지 시스템과 AI CCTV, 스마트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추락 보호 안전장치 등이 있다.

김성민 GS칼텍스 CSEO/각자대표(최고 안전 환경 책임자)는 “위험할 뻔 멈춤, 동료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 그대로 퇴근합시다”라는 안전 구호 아래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했다”면서 “대 정비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준 기자